

제49호 1987년 7월 20일

물리치료회보

대한물리치료사협회
Korean Physical Therapy Association

호주 시드니 WCPT 총회에 다녀와서 (II)

협회장 김 용 천

5월 18일(월요일) 오후 1시 30분 제10차 WCPT 총회가 열렸다. 총회의장은 Hilton hotel 8층의 대회의실로 회의장 중앙부분은 회원국 대표들이 앉을 수 있는 테이블이 각국명의 ABC 순으로 배열되어 있었고 각 테이블마다 나라 이름을 적은 명패가 놓여있어 국제회의의 엄숙한 분위기를 자아내었다.

회의장 전면에는 참가 회원국 국기가 일렬로 도열되어 있는 가운데 나는 ABC순으로 일본(Japan) 다음 테이블의 Korea의 명패앞에 앉아서 회의에 입했다. 회의는 먼저 WCPT 사무국장 Margaret O'Hare 여사의 불참국 보고가 있었는데 불참국 중에는 남미나 동구권 중에서 국내사정으로 불참한 나라(칠레, 콜롬비아, 폴란드, 터키 등)와 남아연방 공화국의 인종차별 문제로 남아연방을 WCPT에서 축출하자는 정치적인 이유로 시드니 WCPT 총회를 보이콧한 덴마크, 노웨이 등을 합해서 10여개국이었다(이 남아연방 문제를 이번 시드니 총회에서 가장 격론을 벌였던 큰 이유로서 이 문제 때문에 목요일에 끝내기로 되었던 총회가 금요일까지 연장되는 바람에 나의 시드니 관광계획까지 포기해야만 했다).

불참국 보고가 끝난 후 회의참석 확인호명이 ABC순으로 진행되어 성원보고 절차를 걸쳐서 진행되었다(이러한 확인호명 성원보고 절차는 4일간의 gential meeting 때마다 행해졌기 때문에 나라 체면상 지각이나 불참은 생각할 수도 없었다).

첫 날은 WCPT 회원국으로 가입하고자 가입

신청서를 낸 두 나라, 싸이프러스(Cyprus)와 푸에르토리코(Puertorriquo)의 가입문제를 제일 먼저 토의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두 나라가 정회원국으로 자국의 국기를 들고 입장하였다. 입장시에는 모두 일어서서 박수로 환영하였고 새로 마련한 테이블에 자리하여 앉은 후 각국대표들과 악수를 나누고 서로 축하를 주고 받았다. 나도 두 나라 대표들을 축하했는데 진심으로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비록 언어와 풍습은 달라도 물리치료사라는 직업적인 유대가 국경을 초월할 수 있다는 확신을 느꼈다.

첫날 회의는 이어서 4년간의 업무보고 및 재무보고로 끝났다. 회의장의 양옆으로는 일반회원들이 방청할 수 있는 방청석이 마련되어 있어서 WCPT 총회에 관심있는 각국의 일반회원들이 진지하게 회의진행을 방청하는 모습도 흐뭇한 광경이었다.

그날저녁 6시 시드니를 관광하는 New South Walse 주지사가 초청한 파티에 참석하여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 파티에는 각국대표, 주정부 고위관리, 시드니의 Rehab. Dr., 등 약 80여명이 참석하였는데 파티장소가 시드니항이 한 눈에 내려다 보이는 31층 빌딩의 맨윗층이어서 아름다운 야경과 맛있는 음식, 좋은 술은 물론 여종업원들의 친절한 서비스가 곁들여져 이국의 정취를 마음껏 느낄 수 있었다.

밤 10시경 숙소로 돌아와 보니 정태훈씨는 아직 돌아오지 않아서 가벼운 옷을 갈아입고 혼자서 산책을 나갔다. 그 근처의 거리이름은 King street로 오래된 2,3층 건물이 많은 거리로

서 밤늦게까지 문열고 있는 상점은 음식점과 술집밖에 없었다. 음식점은 각국의 전통음식점이 다양하게 있었는데 이태리, 인도네시아, 태국, 리비아, 중국 음식점 등은 많았는데 한국이나 일본 음식점은 없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한국 음식점이나 일본 음식점은 시드니에서 가장 변화한 거리인 Kings' cross에 있었다.

그날 저녁 이태리 음식점에 들어가서 정통 이태리 스파게티를 먹어봤다. 음식값은 호주불 3~5달러(1,800원~3,000원) 정도로 그리 비싼편은 아닌데 재미있는 사실은 일반 대중 음식점에서는 술을 팔지못하게 되어있고 술은 술집에서만, 음식과 술을 같이 먹으려면 고급 레스토랑에서만 판다는 것이었다.

다음날 화요일 아침 10시부터 ACPT 회의가 별도로 열렸다. 전날 저녁 일본의 모리나가씨가 총무로 각 ACPT 회원국 대표들에게 미리 약속했던 시간으로 장소는 WCPT 총회 사무실을 빌렸다. 회의 참석국은 한국, 일본, 대만, 홍콩, 태국, 파키스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8개국으로 주제는 내년도 일본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 3회 ACPT 학술대회에 관한 문제였다.

우선 ACPT 회장 선거가 있었는데 회장에 마쓰무라 일본 협회장, 사무국장에 모리나가씨가 당선되어 회의를 주재했는데 가장 문제가 된 것은 내년도 동경에서 열릴 ACPT 학술대회의 참가비가 너무 비싸다는 것이었다. 일본 엔화의 강세로 인하여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참가비만 150불(1988년 9월 7일 단 하루)이란 문제가 나는 물론 다른 회원국들의 불만의 대상이었다.

모리나가씨가 나중에 변명한다는 것이 1983년 한국에서 제 2회 ACPT가 열렸을 때 200불을 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길래 내가 그것은 3박 4일의 일류호텔 숙박비와 식대, 하루의 관광비까지 모두 포함한 금액이라고 반박하자 결국 더 이상 변명을 못하고 일본 국내물가가 너무 비싸다는 이유만 내세우길래 내가 다시 마쓰무라 회장에게 숙식이라도 일본 회원들의 집에서 민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일본협회에서 노력해달라고 부탁하여 다른 회원국들의 동의를 받았고 마쓰무라 회장과 모리나가씨도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ACPT 회의를 마쳤다.

그날 오후 1시반의 WCPT 회의는 프랑스가 정식으로 상정한 안전으로 시끄러웠다. 즉 WCPT 정관에는 WCPT회의의 공용어는 영어를 쓰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개정하여 영어와 프랑스어를 같이 쓰자는 것이었다. 프랑스 대표는 50대의 남자들만 3명이 참석했는데 회의벽두부터 영어는 한마디도 안쓰고 의식적으로 프랑스어로만 고집하였기 때문에 부랴부랴 동시 통역 이어폰까지 각 회원국 테이블마다 준비하느라 부산하였고 장시간에 걸쳐 찬반토론이 벌어져 결국 프랑스어 사용국이 몇나라 안된다는 점과 항상 동시통역 시설을 해야된다면 많은 비용이 들게된다는 이유로 포결에서 부결되었다. 나도 물론 반대포결을 했는데 재미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요일 날 회의 끝날 때까지 계속 자기나라말 만으로 일관했다는 점이다. 심지어 회의 시작 전에 꼭 행해지는 회의 참석 확인 호명때에도 "Yes" 대신 "Oui"라고 하는 애교스런 고집을 보여 모두 같이 웃었고 자기들도 재미있어하는 모습을 보여줘 프랑스식 애국심을 과시했다. 그 다음날 수요일(5월 20일)은 모처럼 회의가 없는날이었다. 이날 처음으로 하루종일 시드니를 구경했다. 회의 참석때는 정장을 해야 했지만 이날은 가벼운 잠바차림으로 카메라를 휴대하고 혼자서 오전 10시경 시드니 항구로 나갔다(정태훈씨는 다른 관광스케줄 때문에 동행할 수 없었다).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바로옆에 웨리보트선착장이 있는데 이곳에서 시드니 항구를 구경하는 유람선 표를 끊어서 배를 탔다. 약 3시간 정도 시드니 항구의 구석 구석을 관광하는 코스인데 세계 3대미항의 하나인 시드니항의 아름다운 광경을 충분히 보여줬다.

바닷가의 전원주택들,녹색의 잔디 정원과 울창한 나무숲, 집집마다 메어져 있는 하얀 요트들, 그 요트들의 돛대가 마치 나무숲 처럼 시야가 못미치는 곳까지 펼쳐진 광경, 유람선 옆으로 능숙한 솜씨로 요트를 조종하여 세일링하면서 우리를 보고 손을 흔들어주는 사람들(그중에는 노인 부부도 있었고 국민학생 또래의 어린이도 있었다).

카메라에 담을 광경이 너무 많아서 3시간여의 유람시간이 아쉽게 느껴졌다.

그날 저녁 7시에 시드니의 City Town Hall 에서 호주 협회가 마련한 각국 참가자 전회원을 위한 공연파티가 있었다.

Sydney city town hall 은 19세기초에 건립된 영국풍의 중후한 석조건물인데 지하층과 1층은 넓은 강당이고 2층은 1층 홀을 내려다 볼 수 있게 좌석이 되어있는 구조로서 1층홀은 나중에 1,700여명이 한꺼번에 춤을 추어도 별로 좁지 않을 정도의 크기였다.

이 파티의 이름은 호주식으로 "CORROBOR EE"라는 명칭이었는데 우선 참가 인원수도 인원수려니와 그 준비 상태가 정성스럽고 호화스러워 놀랐다.

입장시 Hall 입구에 영국식의 근위병 복장을 한 악단이 음악을 연주 해주고 근위병들이 착검한 총을 들을 도열해 있는 것부터 시작하여 지하홀에는 호주에서만 시는 캥카루와 코알라를 직접 여러 마리를 가져다 놓고 보여주었는데 특히 코

알라의 재롱은 귀엽고 재미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 하였다. 한쪽에서는 옛날 호주 복장을 한 여인들이 전통적인 방법으로 양모에서부터 실을 찾아서 그 실로 셰타를 짜서 파는 코너가 있는가 하면 호주식 갈비구이 코너, 바베큐, 빵, 음료, 과일, 술 등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게 준비되어 있었고 1층홀에서는 무대에서 도끼로 통나무 자르기 경기, 호주 민속무용, 가수 와 악단의 노래연주 등 즐거운 프로그램이 진행되었고 나중에는 5인조 악단의 리드로 전 회원의 포크댄스를 하였는데 이때가 가장 장관이었다.

나는 스코트랜드 아가씨와 춤을 추었다. 배의 둘레나 체격조건이 나와 흡사한 수지라는 이름을 가진 이 처녀는 춤도 잘 추었지만 쾌활하고 재미있었는데 과연 얼마나 어울리는 날씬한(?) 한 쌍이었던지는 이 글을 읽는 회원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긴다.

(다음호에 계속)



Lumbar Spine의 Manipulation과 Mobilization의 임상적 평가

Richard P. DL Fabio

김 광 수 역 (한양대학병원)

Manual therapy의 폭넓은 이용은 그 적용에 있어서의 성공정도를 제시한다. 이 글에서 나는 lumbar spine에 대해 manipulation이나 mobilization의 이용에 대해 적용되는 임상적 연구를 재 음미한다.

Review된 literature는 치료목적이 고통을 강하고 motion을 증가시켜 주는 것일 때 동등한 결과를 지적해주고 있다. Low syndrome으로부터 자발적 회복의 우연함 때문에, 검사측정이 의미심장하게는 치료를 하지 않을 때라도 개선되어 질때도 있다. Manual therapy의 치료적 효과에 대한 평가가 다른 물리치료 과정과

함께 이용될 때 잠재적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 복잡해 지기도 한다.

나는 더욱더 잘새진 학문에 대한 필요에 대해 토의한다.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low back에 대한 비의과적 치료가 거의 기록 체계화되지 않았다. 그러나 pain을 감소해주고 제한된 motion을 개선시켜주는 효과가 있다.⁴⁾ Low back syndrome에 대한 전례적인 물리치료는 modalities, exercise, patient education과 posturing의 사용이 포함된다.^{5, 6)} Manual therapy(manipula-